

학회 60주년을 맞으며

김영식†

임종태 교수로부터 “축사” 청탁을 받고 바로 든 생각은 제가 학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축하를 할 일이 아니라 축하를 받아야 할 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제가 학회와 저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 사실 이미 한참 전부터 제가 학회와는 떨어져서 학회 밖에서 지내온, 학회 외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외부 사람”으로서 학회 60주년을 맞이해서 학회를 맡아 일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사실상 “한국과학사학회”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77년 6월 초 미국에서 귀국한 얼마 후 송상용 선생님께서 서울대로 찾아오셔서 만나뵈면서였습니다. 그때 송선생님께서 가방에서 입회원서를 꺼내시고 서명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 제게 바로 학회 일을 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학위논문을 끝내지 못하고 귀국한 상황에서 화학과에 소속되어 강의도 하면서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을 배려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 저는 그냥 학회의 여러 행사들에 참석하고 발표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석하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언제쯤인가 그동안 줄곧 간사를 맡아 오시던 송상용 선생님이 간사직을 박성래 선생님께 넘기셨고, 아마 한참은 박선생님이 간사 일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박선생님께서 교무처 장인지 보직을 맡으시면서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991

년에는 송선생님께서 학회장이 되시면서 학회지 편집인까지 제가 맡았습니다. 결국 1년 두 차례 학술발표회 개최, 학회지 발간, 그 외의 행사 등. 학회의 모든 일들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송선생님의 끊임없는 도움과 때로는 참견이 있으셨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일들이 제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실제 학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일들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예컨대 제 아버지 기일인 11월 6일과 당시 11월 첫 토요일로 정해져 있었던 학회 추계발표회가 가끔씩 겹치고 그럴 때는 제가 자리에 없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1999년 제 자신이 학회장이 되고서는 간사를 여러 명으로 늘려 학회의 각 부문을 맡아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고서 저는 관여하지 않는 체제를 시행했습니다. 2000년 가을 학회를 학회창립 40주년 기념회의로 마치고 이성규 선생께 회장직을 넘긴 후에는 저는 학회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혀 관계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진행돼서, 지난 수년간은 학회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도 잦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천천히 제가 학회의 “외부 사람”이 되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바로 이 점이 우리 학회를 두고, 아니 “여러분”의 학회를 두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학회가 탄탄하고 믿음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굳이 나서서 걱정할 필요 없이 든든하게 운영되는 내실 있고 훌륭한 학회가 되어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축하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학회 창립 60주년에 오늘의 학회 상황을 든든하게 여기고 그것을 축하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학회 관련 자료 파일을 뒤적여다가, 10년 전 2010년 11월 5일 전주에서 거행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학회의 특별세션에서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 과학사학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학회가 창립된 후 지난 50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어 왔”고,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축하할 만한, 축하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연관된 이유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학회의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되풀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시했던 이유는 학회와 과학사학계가 함께 발전해 왔다는 점이었습

니다. 이는 당연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학계의 모든—거의 대부분의—학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가 집행부만의, 임원들이나 그 측근들만의 학회가 아니라 한국 과학사학회 전체의 학회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 학계가 작아서 그랬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상운, 유경로, 송상용, 오진곤, 박성래, 김명자, 남문현 교수 등 사려 깊은 선배 학자들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축하해야 할 둘째 이유로 제시했던 것은 위에서 “첫째”로 제시한 이유와 연관되기도 하는데, “우리 학계가 균형과 건강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정체하지 않고 변화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측면을 지적했었습니다.¹

1) 분야에 있어서의 균형과 다양성

- 주제: 물리과학/생명과학/의학/기술
- 시기: 전통/근현대
- 지역: 서양/동양(한국)

이중 때로 한쪽으로의 치우침, 한쪽의 소홀함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선배 학자들의 기여가 컸습니다. 특히 송상용 교수는 과학사 내부의 여러 주제, 영역들 뿐 아니라, 주변 분야(과학철학, 과학사회학, 과학정책학, STS 등)와의 연결에 열심이었고 결과적으로 “과학학” 또는 “STS” 영역과 과학사 전문 영역과의 조화로운 연결을 이루는 데 기여했습니다. 물론 역사학(사회사, 사상사) 분야와 같은 수준의 연결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2) 학문적 수월성 vs. 사회적 의미 (대중과의 소통 포함)

우리 학회는 이 두 가지 양쪽 모두를 추구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양쪽 사이에

¹ 60주년 기념학술회의 당일에는 이 중 1)과 7)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당일 생각했던 2)-6)을 함께 신기로 한다.

일종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들 사이에 마찰/충돌이 별로 없습니다.

3) 접근법

과학사의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이제는 out-date된 표현이지만—사이의 균형 이외에도, “social constructivism”, “cultural studies”, “science and empire”, “post-colonialism” 등등 새로운 접근법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법들의 유행에 따라 때로는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비슷한 것이 보일 때도 있지만 항상 균형을 회복해 왔습니다.

4) 사회적 역할(직업)

우리 학회의 구성원들이 학계만이 아니라 실무(언론, 정책, 과학문화 사업...) 등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5) 해외유학 vs. 국내 training

6) 세대

처음에는 주로 인력이 많지 않은 까닭이었지만 세대간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같은 단절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대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7) professional(전문 학자, 연구자) vs. amateurs(대부분 과학자들)

어떤 면에서는 그간 우리 학계가 아마추어 중심에서 프로페셔널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회는 professional들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는 당연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amateur들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amateur들과 계속 연결을 갖고 그들을 포괄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 학회는 이 점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덧붙인 말은 “지금까지 우리 학계의

상황에 대해 어찌면 자화자찬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이야기해 온 것일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고, “만약에 실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과학사학계가 분야에 있어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특히 추세 면에서 그렇지 못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동서양 모두에 있어 시기적으로 현대에만 집중하고 전통 시기를 등한시하고 있으며, 동양 과학사의 경우 한국에만 집중하고 중국, 일본은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면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균형을 되찾아 갈 것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학회의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은 대체로 같습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은 우리 학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더 충실하고 훌륭한 학회가 될 것을 바랍니다.